

2018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7
II. 조사 설계	7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7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8
3.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0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10
2) 조사 기간	10
3) 자료 분석 방법	10

조사결과의 분석

I. 조사결과의 분석	13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2. 욕구조사 결과	29
1) 개인적인 문제	29
2) 복지관 이용	32
3) 영역별 욕구	36
4) 건의사항	51

요약 및 제언

I. 요약 및 제언	55
1. 요약	55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55
2) 욕구조사결과	60
2. 제언	64

부록 2018년 남동구 지역장애인욕구조사 설문지	67
----------------------------------	----

[표목차]

[표Ⅱ-1] 설문지 내용	9
[표Ⅱ-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0
[표Ⅰ-1] 장애인과의 관계	13
[표Ⅰ-2] 성별	13
[표Ⅰ-3] 연령	14
[표Ⅰ-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15
[표Ⅰ-5] 경제수준	16
[표Ⅰ-6] 수급자 급여 비율	16
[표Ⅰ-7] 결혼상태	17
[표Ⅰ-8] 학력	17
[표Ⅰ-9] 가구 총수입	18
[표Ⅰ-10] 주거형태	18
[표Ⅰ-11] 가족구성형태	19
[표Ⅰ-12] 가족내장애 유무	20
[표Ⅰ-13] 가족내장애 장애유형	20
[표Ⅰ-14] 거주지역	21
[표Ⅰ-15] 남동구거주기간	21
[표Ⅰ-16] 장애등록 유무	22
[표Ⅰ-17] 장애 미등록 사유	22
[표Ⅰ-18] 장애유형	23
[표Ⅰ-19]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24
[표Ⅰ-2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25
[표Ⅰ-21] 장애등급	26
[표Ⅰ-2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27
[표Ⅰ-23] 일상생활 도움정도	28
[표Ⅰ-24]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어려움	29
[표Ⅰ-25]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30
[표Ⅰ-26]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 이용여부	31
[표Ⅰ-27] 복지관 정보 경로	32
[표Ⅰ-28] 복지관 이용에 불편한 점	33
[표Ⅰ-29] 복지관 선택기준	34
[표Ⅰ-30]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	35
[표Ⅰ-31] 문화·여가서비스 이용경험	36
[표Ⅰ-3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37
[표Ⅰ-33]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38

[표 I -34]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39
[표 I -35]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40
[표 I -36]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41
[표 I -37]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경험	42
[표 I -38]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목적	43
[표 I -39] 희망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44
[표 I -40]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경험	45
[표 I -4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46
[표 I -42]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47
[표 I -43]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48
[표 I -44]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	49
[표 I -45]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50

2018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설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과 관련한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 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대표자 간담회를 연2회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자의 의견의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18년 11월에 실시된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II.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2018년 11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최근 거주지를 남동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자는 설문에 응답),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4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6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2018)」, 「서울시립대학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및 욕구대응성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중심으로(2007)」 및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2017)」, 「고흥군장애인복지관, 2017 장애인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7)」, 「푸르메재단, 종로구 장애인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 운영을 중심으로(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이용, 장애인복지 영역별 서비스 욕구,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Ⅱ-1]을 참고하면 된다.

[표Ⅱ-1]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수	내용
일반적 특성	12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학력, 가구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 가족 내 장애여부, 거주 지역, 남동구거주기간
장애 특성	5	장애등록유무, 장애미등록사유, 장애유형, 장애등급, 일상생활 도움정도
개인적 문제	3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 어려움 해결 지원 시 복지관 이용유무
복지관 이용	4	복지관 정보 획득경로, 이용 시 불편한 점, 복지관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역할
영역별 욕구	15	문화·여가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희망하는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재가 서비스(이용경험, 희망하는 서비스)
건의사항	1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의사항
총문항	40	

3.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담당직원들이 이용인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담당 직원이나 1층에 설문지 회수함을 배치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설문지를 이용인의 각 가정으로 보내어 주부양자들이 응답한 것을 담당 직원들이 수거하여 설문 회수함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Ⅱ-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500명
설문지 회수	354명
회 수 율(%)	70.8%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은 9월 3일~9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10월 22일~11월 9일까지 3주간 진행 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8년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의 분석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결과의 분석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41.7%(146명), 가족 50.0%(175명), 외부인 8.3%(2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1] 장애인과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146	41.7
가족	175	50.0
외부인	29	8.3
계	350	100

결측값 제외(N=4)

② 성별

이용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48.7%(171명), 여자 51.3%(180명)로 조사되어 여자가 남자보다 2.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71	48.7
여자	180	51.3
계	351	100

결측값 제외(N=3)

③ 연령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3.0%(43명), 10-19세 이하가 14.3%(47명), 20-29세 이하가 23.7%(78명), 30-39세 이하가 14.6%(48명), 40-49세 이하가 13.4%(44명), 50-59세 이하가 12.8%(42명), 60-69세 이하가 5.2%(17명), 70세 이상이 3.0%(10명)로 나타나 20-2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0-9세	43	13.0
10-19세	47	14.3
20-29세	78	23.7
30-39세	48	14.6
40-49세	44	13.4
50-59세	42	12.8
60-69세	17	5.2
70세-	10	3.0
계	329	100

결측값 제외 (N=25)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모두 20-29세 이하 응답자가 29.1%(46명), 18.7%(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0-9세 이하 18.4%(29명), 여성은 40-49세 이하 18.1%(31명)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10-19세 이하 17.7%(28명), 여성은 30-39세 이하 17.0%(29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0-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18.4%, 여성이 8.2%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4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8.2%, 여성이 18.1%로 약 2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연령별 성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0-9세	29	14	43
	18.4%	8.2%	13.1%
10-19세	28	19	47
	17.7%	11.1%	14.3%
20-29세	46	32	78
	29.1%	18.7%	23.7%
30-39세	19	29	48
	12.0%	17.0%	14.6%
40-49세	13	31	44
	8.2%	18.1%	13.4%
50-59세	14	28	42
	8.9%	16.4%	12.8%
60-69세	4	13	17
	2.5%	7.6%	5.2%
70세-	5	5	10
	3.2%	2.9%	3.0%
계	158	171	329
	100%	100%	100%

④ 경제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28.2%(98명), 비수급자(일반) 71.8%(250명)로 나타나 비수급자(일반)가 수급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 경제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98	28.2
비수급자(일반)	250	71.8
계	348	100

결측값 제외 (N=6)

[표 I -6] 수급자 급여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급여	54	33.4
	의료급여	59	36.4
	주거급여	36	22.2
	교육급여	13	8.0
계	162	100	

※ 이 값은 중복 응답 가능 항목으로 [표 I -5]에 수급자 빈도(명) 값과 상이함.

⑤ 결혼상태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64.5%(223명), 기혼이 23.7%(82명), 이혼이 5.5%(19명), 사별이 4.3%(15명), 별거 0.3%(1명), 기타 1.7%(6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 결혼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	223	64.5
기혼	82	23.7
이혼	19	5.5
사별	15	4.3
별거	1	0.3
기타	6	1.7
계	346	100

결측값 제외 (N=8)

⑥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9.7%(34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18.1%(63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8.3%(29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46.4%(162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16.3%(57명), 무학이 1.2%(4명)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미취학	34	9.7
초등학교 재학·졸업	63	18.1
중학교 재학·졸업	29	8.3
고등학교 재학·졸업	162	46.4
대학교 재학·졸업	57	16.3
무학	4	1.2
계	349	100

결측값 제외 (N=5)

⑦ 가구 월평균 총소득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수준을 보면 99만원 이하가 17.2%(44명), 100-199만원 이하가 21.2%(54명), 200-299만원 이하가 14.5%(37명), 300-399만원 이하가 19.2%(49명), 400-499만원 이하가 10.6%(27명), 500만원 이상이 17.3%(44명)로 나타나 100-199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 가구 총수입

구분	빈도(명)	비율(%)
-99만원	44	17.2
100-199만원	54	21.2
200-299만원	37	14.5
300-399만원	49	19.2
400-499만원	27	10.6
500만원-	44	17.3
계	255	100

결측값 제외 (N=99)

⑧ 주거형태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55.2%(188명), 전세 14.4%(49명), 월세 13.8%(47명), 영구임대 12.9%(44명), 기타 3.5%(12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I -10] 주거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	188	55.3
전세	49	14.4
월세	47	13.8
영구임대	44	12.9
기타	12	3.6
계	340	100

결측값 제외 (N=14)

⑨ 가족구성형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부부 15.5%(47명), 부부+ 자녀 50.5%(153명), 조부모+ 부부+ 자녀 3.3%(10명), 한부모+ 자녀 16.2%(49명), 조부모+ 자녀 3.3%(10명), 기타 11.2%(34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총 응답수의 1/2을 차지했다.

[표 I -11] 가족구성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부부	47	15.5
부부+ 자녀	153	50.5
조부모+ 부부+ 자녀	10	3.3
한부모+ 자녀	49	16.2
조부모+ 자녀	10	3.3
기타	34	11.2
계	303	100

결측값 제외 (N=51)

⑩ 가족내장애

조사대상자의 가족내장애 유무를 보면 ‘없다.’는 응답이 75.1%(257명), ‘있다.’는 응답이 24.9%(85명)로 나타나 가족내장애가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2] 가족내장애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없다.		257	75.1
있다.	1명	82	24.0
	2명	3	0.9
계		342	100

결측값 제외 (N=12), 당사자 미포함

조사대상자의 가족내장애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가 29.2%(24명), 시각장애 3.7%(3명), 뇌병변장애 19.5%(16명), 청각장애 1.2%(1명), 언어장애 2.4%(2명), 지적장애 24.4%(20명) 자폐성장애 9.8%(8명), 정신장애 4.9%(4명, 신장장애 3.7%(3명), 심장장애 1.2%(1명)로 나타나 가족내장애 유형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3] 가족내장애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24	29.2
시각장애	3	3.7
뇌병변장애	16	19.5
청각장애	1	1.2
언어장애	2	2.4
지적장애	20	24.4
자폐성장애	8	9.8
정신장애	4	4.9
신장장애	3	3.7
심장장애	1	1.2
계	82	100

⑪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남동구 91.8%(314명), 인천타지역 5.9%(20명), 타시도 2.3%(8명)으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4]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남동구	314	91.8
인천타지역	20	5.9
타시도	8	2.3
계	342	100

결측값 제외 (N=12)

⑫ 남동구 거주기간

조사대상자의 남동구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 4.6%(14명), 1년 초과~5년 이하 51.5%(158명), 5년 초과~10년 이하 14.0%(43명), 10년 초과 29.9%(92명)으로 나타나 1년 초과~5년 이하 남동구 거주기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거주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표 I -15] 남동구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4	4.6
1년 초과~5년 이하	158	51.5
5년 초과~10년 이하	43	14.0
10년 초과	92	29.9
계	307	100

결측값 제외 (N=7)

⑬ 장애등록 유무

조사 대상의 장애등록 유무는 등록 90.9%(320명), 미등록이 9.1%(32명)로 나타나 응답한 장애인 10명 중 1명꼴로 장애 미등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6] 장애등록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등록	320	90.9
미등록	32	9.1
계	352	100

결측값 제외 (N=2)

⑭ 장애 미등록 사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7.2%(2명),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7.2%(2명),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17.9%(5명),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46.4%(16명), 기타가 21.4%(6명)으로 나타나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총 응답수의 1/2이 조금 안되게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나이가 어려서’, ‘내년에 등록 예정’, ‘등록심사 탈락’, ‘아이가 어려 치료를 받아 비장애인으로 갈 수 있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17] 장애 미등록 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2	7.2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2	7.2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5	17.8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	13	46.4
기타	6	21.4
계	28	100

결측값 제외 (N=4)

⑮ 장애 유형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20.6%(80명), 시각장애 3.1%(12명), 뇌병변장애 15.0%(58명), 청각장애 3.1%(12명), 언어장애 6.7%(26명), 지적장애 27.9%(108명), 자폐성장애 11.9%(46명), 정신장애 7.8%(30명), 신장장애 1.8%(7명), 심장장애 0.5%(2명), 간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1.3%(5명)으로 나타나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8]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80	20.6
시각장애	12	3.1
뇌병변장애	58	15.0
청각장애	12	3.1
언어장애	26	6.7
지적장애	108	27.9
자폐성장애	46	11.9
정신장애	30	7.8
신장장애	7	1.8
심장장애	2	0.5
간장애	1	0.3
뇌전증장애	5	1.3
계	387	1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27.1%(58명), 29.4%(52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뇌병변장애 16.9%(35명), 여성은 지체장애 26.6%(47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는 남성이 0.9%, 여성이 5.1%로 약 4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응답자는 각각 남성이 8.7%, 15.5%, 여성이 4.5%, 7.9%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19]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지체장애	32 15.5%	47 26.6%	79 20.5%
시각장애	6 2.9%	6 3.4%	12 3.1%
뇌병변장애	35 16.9%	23 13.0%	58 15.1%
청각장애	2 0.9%	9 5.1%	11 2.9%
언어장애	18 8.7%	8 4.5%	26 6.8%
지적장애	56 27.1%	52 29.4%	108 28.1%
자폐성장애	32 15.5%	14 7.9%	46 12.0%
정신장애	19 9.2%	11 6.2%	30 7.8%
신장장애	3 1.4%	2 1.1%	5 1.3%
심장장애	1 0.5%	2 1.1%	3 0.8%
간장애	0 0.0%	1 0.6%	1 0.3%
뇌전증장애	3 1.4%	2 1.1%	5 1.3%
계	207 100%	177 100%	384 10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7.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지적장애 38.7%(24명), 20~29세는 지적장애 44.7%(46명), 30~39세는 지적장애 40.8%(20명), 40~49세는 지체장애 33.3%(13명), 50~59세는 지체장애 59.1%(26명), 60~69세는 지체장애 47.4%(9명), 70세~는 시각장애 60%(6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2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구분	연령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지체장애	0 0.0%	2 3.2%	9 8.7%	8 16.3%	13 33.3%	26 59.1%	9 47.4%	0 0.0%	67 18.4%
시각장애	1 2.6%	0 0.0%	1 1.0%	2 4.2%	1 2.6%	2 4.5%	3 15.7%	6 60.0%	16 4.4%
뇌병변장애	18 47.4%	16 25.8%	5 4.9%	3 6.1%	6 15.4%	2 4.5%	1 5.3%	1 10.0%	52 14.3%
청각장애	1 2.6%	1 1.6%	2 1.9%	1 2.0%	2 5.1%	2 4.5%	1 5.3%	3 30.0%	13 3.6%
언어장애	3 7.9%	4 6.5%	9 8.7%	5 10.2%	2 5.1%	1 2.3%	0 0.0%	0 0.0%	24 6.6%
지적장애	10 26.4%	24 38.7%	46 44.7%	20 40.8%	4 10.3%	3 6.8%	1 5.3%	0 0.0%	108 29.7%
자폐성장애	3 7.9%	13 21.0%	20 19.4%	2 4.2%	5 12.8%	1 2.3%	0 0.0%	0 0.0%	44 12.1%
정신장애	1 2.6%	0 0.0%	8 7.8%	5 10.2%	4 10.3%	6 13.7%	2 10.4%	0 0.0%	26 7.1%
신장장애	0 0.0%	0 0.0%	2 1.9%	1 2.0%	1 2.6%	1 2.3%	1 5.3%	0 0.0%	6 1.6%
심장장애	0 0.0%	0 0.0%	1 1.0%	1 2.0%	0 0.0%	0 0.0%	1 5.3%	0 0.0%	3 0.8%
간장애	0 0.0%	0 0.0%	0 0.0%	0 0.0%	1 2.6%	0 0.0%	0 0.0%	0 0.0%	1 0.3%
뇌전증장애	1 2.6%	2 3.2%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4 1.1%
계	38 100%	62 100%	103 100%	49 100%	39 100%	44 100%	19 100%	10 100%	364 100%

⑩ 장애 등급

조사 대상의 장애 등급 분포는 1급이 33.6%(107명), 2급이 30.4%(97명), 3급이 19.1%(61명), 4급이 4.7%(15명), 5급이 5.6%(18명), 6급이 6.6%(21명)로 나타나 1급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21]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비율(%)
1급	107	33.6
2급	97	30.4
3급	61	19.1
4급	15	4.7
5급	18	5.6
6급	21	6.6
계	319	100

결측값 제외 (N=35)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2급이 26.2%(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급이 23.8%(19명)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6급 50.0%(5명), 1급 30.0%(3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뇌병변장애인은 1급 21.9%(27명), 2급 19.2%(10명) 순이며, 청각장애인은 1~5급까지 각각 20.0%(2명)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언어장애인은 1급 50.0%(9명), 4급 22.2%(4명) 순으로, 지적장애인은 2급 47.0%(39명), 1급 33.7%(28명)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자폐성장애인은 1급 54.6%(18명), 2급 42.4%(14명) 순으로, 정신장애인은 3급 64.7%(11명), 2급 23.5%(4명) 순으로, 신장장애인은 4명중 2급, 5급이 각각 50.0%(2명), 심장장애인은 3급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1급에서 지적장애인이 27.5%(2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이 26.5%(27명)이 많았다. 2급에서는 지적장애인 41.1%(39명), 지체장애인 22.1%(21명) 순으로, 3급은 지체장애인 31.7%(19명), 지적장애인 26.7%(16명) 순으로, 4급은 지체장애인 38.5%(5명), 언어장애인 30.8%(4명) 순으로, 5급은 지체장애인 50.0%(9명), 뇌병변장애인 22.2%(4명), 6급은 지체장애인 65.0%(13명), 시각장애인 25.0%(5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 -22]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구분	장애등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13	21	19	5	9	13	80
시각장애	3	1	0	1	0	5	10
뇌병변장애	27	10	8	1	4	2	52
청각장애	2	2	2	2	2	0	10
언어장애	9	2	2	4	1	0	18
지적장애	28	39	16	0	0	0	83
자폐성장애	18	14	1	0	0	0	33
정신장애	2	4	11	0	0	0	17
신장장애	0	2	0	0	2	0	4
심장장애	0	0	1	0	0	0	1
계	102	95	60	13	18	20	308

⑰ 일상생활 도움정도

조사 대상의 일상생활 도움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가 27.1%(93명),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가 23.0%(79명), ‘약간의 도움만으로 활동 가능’이 28.9%(99명), ‘혼자서 독립적인 활동 가능’이 21.%(72명)로 나타나 ‘약간의 도움만으로 활동 가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I -23] 일상생활 도움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93	27.1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	79	23.0
약간의 도움만으로 활동 가능	99	28.9
혼자서 독립적인 활동 가능	72	21.0
계	343	100

결측값 제외 (N=11)

2. 욕구조사 결과

1) 개인적인 문제

①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1, 2순위 별로 물었을 때, 1순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2%(1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총 응답 수의 1/3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업의 어려움이 12.9%(45명), 일상생활의 어려움 10.6%(3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이 15.9%(51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14.4%(46명),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이 12.5%(40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순위의 총 빈도수를 파악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138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으며, 다음으로 취업의 어려움(96명), 일상생활의 어려움(83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4]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어려움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116	33.2	22	6.9	138
취업의 어려움	45	12.9	51	15.9	96
편의시설의 어려움	8	2.3	18	5.7	26
교육의 어려움	25	7.2	19	5.9	44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27	7.7	40	12.5	67
가족 부양·양육의 어려움	16	4.6	28	8.8	44
가족관계의 어려움	6	1.7	11	3.4	17
심리·사회적 어려움	21	6.0	31	9.7	52
대인관계의 어려움	25	7.2	35	10.9	60
일상생활의 어려움	37	10.6	46	14.4	83
문화생활의 어려움	11	3.2	16	5.0	27
없음	12	3.4	3	0.9	15
계	349	100	320	100	669

결측값 제외 1순위(N=11), 2순위(N=34)

②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이 62.2%(219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가 6.5%(23명), ‘관공서에 도움 요청’ 2.8%(10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이 7.4%(26명),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2.0%(7명),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0.9%(3명), ‘혼자서 해결’이 17.6%(62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총 응답 수의 1/2이 넘는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 -25]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에게 도움 요청	219	62.2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	23	6.5
관공서에 도움 요청	10	2.8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	26	7.4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7	2.0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3	0.9
혼자서 해결	62	17.6
기타	2	0.6
계	352	100

결측값 제외(N=2)

③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 이용여부

복지관에서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할 때 복지관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적극 이용하겠다’의 응답이 54.2%(189명), ‘이용하겠다’는 28.7%(100명), ‘고려해보겠다’가 14.6%(51명), ‘이용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가 1.4%(5명), ‘이용할 생각이 없다’가 1.1%(4명)으로 나타나 ‘적극 이용하겠다’는 가장 많았으며 응답이 총 응답의 1/2을 차지하였고,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은 총 82.9%를 보였다.

[표 I -26]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 이용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적극 이용하겠다	189	54.2
이용하겠다	100	28.7
고려해보겠다	51	14.6
이용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	5	1.4
이용할 생각이 없다	4	1.1
계	349	100

결측값 제외(N=5)

2) 복지관 이용

복지관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 ‘복지관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는 지’에 대한 질문과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배제하였다.

① 복지관 정보 경로

복지관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가 40.9%(108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2.7%(7명), ‘인터넷(홈페이지)’가 13.3%(35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가 25.4%(67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가 15.5%(41명), ‘기타’가 2.2%(6명)으로 나타나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을 통해’, ‘복지관 유관기관’을 통해 등이 있었다.

[표 I -27] 복지관 정보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08	40.9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7	2.7
인터넷(홈페이지)	35	13.3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67	25.4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41	15.5
기타	6	2.2
계	264	100

② 복지관 이용에 불편한 점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물었을 때,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6.1%(15명), 의사소통의 어려움 6.1%(15명), 이동 거리가 길거나 교통이 불편하다가 14.7%(36명), 복잡한 이용절차 3.7%(9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8.4%(45명), 긴 대기기간 26.5%(65명), 직원의 불친절 1.2%(3명), 불편한 편의시설 및 환경 5.3%(13명),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9.4%(23명), 기타가 8.6%(21명)으로 나타나 긴 대기기간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용기간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

[표 I -28] 복지관 이용에 불편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5	6.1
의사소통의 어려움	15	6.1
이동 거리가 길거나 교통이 불편	36	14.7
복잡한 이용절차	9	3.7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45	18.4
긴 대기기간	65	26.5
직원의 불친절	3	1.2
불편한 편의시설 및 환경	13	5.3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23	9.4
기타	21	8.6
계	245	100

③ 복지관 선택기준

복지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동의 편리성(교통) 19.6%(67명), 프로그램의 다양성 34.6%(118명), 이용료 4.7%(16명), 이용대기 기간 4.1%(14명), 직원의 친절성 4.4%(15명), 편의시설 확충 4.1%(14명),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27.3%(93명), 기타 1.2%(4명)이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말에 이용 가능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 -29] 복지관 선택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이동의 편리성(교통)	67	19.6
프로그램의 다양성	118	34.6
이용료	16	4.7
이용대기 기간	14	4.1
직원의 친절성	15	4.4
편의시설 확충	14	4.1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93	27.3
기타	4	1.2
계	341	100

결측값 제외(N=13)

④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관한 질문에서는 두 가지를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14.0%(90명),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6.6%(42명),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15.3%(98명), 문화·여가 기회 제공 11.1%(71명),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19.2%(123명),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3.0%(19명),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3.0%(19명),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5.4%(35명),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2.8%(18명),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이 8.4%(54명)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 -30]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90	14.0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42	6.6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98	15.3
문화·여가 기회 제공	71	11.1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123	19.2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91	14.2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19	3.0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35	5.4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18	2.8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54	8.4
계	641	1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 영역별 욕구

(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묻은 결과 이용 경험 없음이 40.5%(140명), 6개월 이하 10.1%(35명), 6개월~1년 이하 11.8%(41명), 1년~3년 이하 21.4%(74명), 3년 이상 16.2%(56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31] 문화·여가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경험 없음	140	40.5
6개월 이하	35	10.1
6개월~1년 이하	41	11.8
1년~3년 이하	74	21.4
3년 이상	56	16.2
계	346	100

결측값 제외(N=8)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17.7%(60명), 또래와의 어울림 13.2%(45명), 사회성 향상 20.3%(69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2.1%(75명), 보호자의 시간 활용 3.2%(11명), 특기적성 개발 3.8%(13명), 다양한 체험 19.4%(66명), 기타 0.3%(1명)으로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60	17.7
또래와의 어울림	45	13.2
사회성 향상	69	20.3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75	22.1
보호자의 시간 활용	11	3.2
특기적성 개발	13	3.8
다양한 체험	66	19.4
기타	1	0.3
계	340	100

결측값 제외(N=14)

③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서 1순위는 음악활동이 30.5%(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들이·여행 15.9%(55명), 문화체험 13.8%(48명)의 비율이 높았다. 2순위는 나들이·여행이 25.0%(8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문화체험 16.8%(58명), 음악활동 10.2%(35명)의 비율이 높았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볼 때 음악활동과 나들이·여행이 14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문화체험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등산’, ‘한문’ 등이 있었다.

[표 I -33]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음악활동(노래교실, 난타, 국악, 합창, 악기연주 등)	106	30.5	35	10.2	141
미술활동	20	5.8	19	5.5	39
연극활동	6	1.7	15	4.3	21
공예활동(가죽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42	12.1	23	6.7	65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48	13.8	58	16.8	106
요리활동	20	5.8	30	8.7	50
취미활동(캘리그래피, 사진촬영, 독서 등)	18	5.2	26	7.6	44
숲체험	23	6.6	34	9.9	57
나들이·여행	55	15.9	86	25.0	141
자원봉사활동(마사지, 환경보호 등)	7	2.0	15	4.4	22
기타	2	0.6	3	0.9	5
계	347	100	344	100	691

결측값 제외 1순위(N=7), 2순위(N=10)

(2)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이 42.5%(149명), 6개월 이하와 6개월~1년 이하가 각각 8.3%(29명), 1년~3년 이하 17.9%(63명), 3년 이상 23.0%(81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4]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경험 없음	149	42.5
6개월 이하	29	8.3
6개월~1년 이하	29	8.3
1년~3년 이하	63	17.9
3년 이상	81	23.0
계	351	100

결측값 제외 (N=3)

②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4.9%(119명), 사회성 향상 22.3%(76명), 특기적성 개발 6.2%(21명), 지식 향상 4.4%(15명), 향후 취업준비 7.3%(25명), 다양한 체험 13.2%(45명), 자립능력 향상 11.4%(39명), 기타 0.3%(1명)으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5]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19	34.9
사회성 향상	76	22.3
특기적성 개발	21	6.2
지식 향상	15	4.4
향후 취업준비	25	7.3
다양한 체험	45	13.2
자립능력 향상	39	11.4
기타	1	0.3
계	341	100

결측값 제외 (N=13)

③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에서 1순위는 일상생활훈련이 27.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18.4%(64명), 직업교육 및 훈련 13.3%(46명)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22.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6.3%(55명), 일상생활훈련 11.6%(39명)으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훈련이 134명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I-36]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1 멘토링	33	9.5	15	4.4	48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	26	7.5	19	5.6	45
일상생활훈련	95	27.4	39	11.6	134
학업보충 프로그램	17	4.9	16	4.7	33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64	18.4	75	22.3	139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6	7.5	55	16.3	81
직업교육 및 훈련	46	13.3	37	11.0	83
안전 및 건강교육	16	4.6	35	10.4	51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22	6.3	33	9.8	55
성교육	2	0.6	11	3.3	13
기타	0	0.0	2	0.6	2
계	347	100	337	100	684

결측값 제외 1순위(N=7), 2순위(N=17)

(3)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①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경험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 없음이 48.7%(168명), 6개월 이하 9.0%(31명), 6개월~1년 이하 12.2%(42명), 1년~3년 이하 15.9%(55명), 3년 이상 14.2%(49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7]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경험 없음	168	48.7
6개월 이하	31	9.0
6개월~1년 이하	42	12.2
1년~3년 이하	55	15.9
3년 이상	49	14.2
계	345	100

결측값 제외 (N=9)

②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목적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체력단련이 28.4%(97명), 재활 및 건강 증진이 30.8%(105명), 여가시간 활용 9.1%(31명), 사회성 향상 7.0%(24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7.3%(59명), 특기적성 개발 2.1%(7명), 다양한 체험 4.7%(16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재활 및 건강 증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8]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체력단련	97	28.4
재활 및 건강 증진	105	30.8
여가시간 활용	31	9.1
사회성 향상	24	7.0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59	17.3
특기적성 개발	7	2.1
다양한 체험	16	4.7
기타	2	0.6
계	341	100

결측값 제외 (N=13)

③ 희망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희망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에서 1순위는 수중종목이 35.3%(1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취미운동 22.3%(77명), 건강검진 및 상담이 15.3%(53명)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취미운동이 25.7%(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검진 및 상담이 22.2%(74명), 비만관리 18.9%(95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 총 빈도수를 보면 수중종목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미운동이 163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39] 희망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구기종목(축구, 농구, 탁구, 배트민턴 등)	49	14.2	41	12.3	90
수중종목(수영, 아쿠아로빅 등)	122	35.3	46	13.8	168
격투기종목(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등)	8	2.3	19	5.7	27
취미운동(볼링, 인라인스케이트, 클라이밍, 요가, 에어로빅, 댄스 등)	77	22.3	86	25.7	163
건강검진 및 상담(운동처방 등)	53	15.3	74	22.2	127
비만관리(인바디 측정, 헬스 등)	32	9.2	63	18.9	95
기타	5	1.4	5	1.4	10
계	346	100	334	100	680

결측값 제외 1순위(N=8), 2순위(N=20)

(4) 직업재활 서비스

①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경험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 없음이 71.8%(245명), 6개월 이하 4.4%(15명), 6개월~1년 이하 6.8%(23명), 1년~3년 이하 7.9%(27명), 3년 이상 9.1%(31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0]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경험 없음	245	71.8
6개월 이하	15	4.4
6개월~1년 이하	23	6.8
1년~3년 이하	27	7.9
3년 이상	31	9.1
계	341	100

결측값 제외 (N=13)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27.8%(93명), 취업 현장의 체험 7.8(26명), 직업능력 향상 14.0%(47명), 취업 및 창업 11.6%(39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4.8%(83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5.7%(19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7.5%(25명), 기타 0.8%(3명)으로 나타나 일상생활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93	27.8
취업현장의 체험	26	7.8
직업능력 향상	47	14.0
취업 및 창업	39	11.6
사회적응능력 향상	83	24.8
사회적 안정·소속감	19	5.7
삶의 보람 및 성취감	25	7.5
기타	3	0.8
계	335	100

결측값 제외 (N=19)

③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1순위는 직업적응훈련 38.3%(127명), 자격증 취득교육 19.6%(65명) 순으로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취업알선 및 연계 28.4%(90명), 직업훈련 24.9%(79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 총 빈도수에서는 직업적응훈련이 18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I-42]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64	19.3	17	5.4	81
직업적응훈련	127	38.3	55	17.4	182
자격증 취득교육	65	19.6	33	10.4	98
직업훈련	31	9.3	79	24.9	110
직업훈련(공과훈련)	9	2.7	37	11.7	46
취업알선 및 연계	32	9.6	90	28.4	122
기타	4	1.2	6	1.8	10
계	332	100	317	100	649

결측값 제외 1순위(N=12), 2순위(N=37)

④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에서 1순위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이 36.7%(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과 제빵이 18.2%(70명)로 많았다. 2순위는 제과 제빵 21.9%(70명), 바리스타 21.6%(69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에서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이 161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단순노동’, ‘서비스직’, ‘패션’ 등이 있었다.

[표 I-43]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123	36.7	38	11.9	161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36	10.7	40	12.5	76
인쇄(사진, 스크린)	18	5.4	24	7.5	42
미용, 피부관리	21	6.3	17	5.3	38
조리(양식, 한식 등)	30	9.0	47	14.7	77
제과 제빵	61	18.2	70	21.9	131
바리스타	34	10.1	69	21.6	103
도배	4	1.2	7	2.1	11
기타	8	2.4	8	2.5	16
계	335	100	320	100	655

결측값 제외 1순위(N=19), 2순위(N=34)

(5) 재가복지 서비스

①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용 경험 없음 79.0%(271명), 6개월 이하 2.9%(10명), 6개월~1년 이하 2.3%(8명), 1년~3년 이하 4.4%(15명), 3년 이상 11.4%(39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4]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 경험 없음	271	79.0
6개월 이하	10	2.9
6개월~1년 이하	8	2.3
1년~3년 이하	15	4.4
3년 이상	39	11.4
계	343	100

결측값 제외 (N=11)

②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서 1순위는 생계비지원이 36.2%(11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출지원이 13.4%(44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는 가사지원이 18.6%(58명), 외출지원 16.7%(52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봤을 때, 생계비지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외출지원이 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5]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생계비지원	119	36.2	9	2.9	128
가사지원	28	8.5	58	18.6	86
외출지원	44	13.4	52	16.7	96
정서지원	35	10.6	33	10.6	68
목욕지원	4	1.2	5	1.6	9
차량지원	21	6.4	33	10.6	54
가정도무이 파견	19	5.8	23	7.4	42
의사소통지원	13	4.0	21	6.8	34
보장구 수리·대여	5	1.5	9	2.9	14
밀반찬지원	29	8.8	29	9.3	58
무료급식	2	0.6	12	3.9	14
이미용서비스	6	1.8	22	7.1	28
기타	4	1.2	5	1.6	9
계	329	100	311	100	640

결측값 제외 1순위(N=25), 2순위(N=43)

4)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구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귀하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이 나왔으며 내용을 추려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시설·운영관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 치료 연령 확대.
-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확대.
- 치료 및 프로그램의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어려움.
- 수중재활뿐만 아니라 아쿠아로빅, 생존수영 등 다양한 수중 프로그램 신설 희망.
- 성인 프로그램 확대(부모나 보호자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 주간보호 이용기간 제한 폐지.
- 1:1 치료뿐만 아니라 짝수업, 소그룹수업도 필요(사회성 향상 및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많은 경험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되길 희망함.
- 치료 추천제로 인해 추천되지 않았을 때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수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 자립활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성인 장애인이 향후 보호자 부재 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및 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 훈련, 언어, 인지, 정서 발달 필요.
-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신설 희망.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자조모임 필요. 보호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주길 바람.

② 복지관 시설·운영 관련

- 장애인 등, 하원 차량 지원.
- 사회복지사 및 치료사 확충.

③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 경제적 지원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
-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 축소 및 사설기관 확대로 치료비를 지불하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김. 치료비 부담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재활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함.
-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음.(경증장애인도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겪음)
- 단순한 반복적 업무, 노동업무 등을 개발하여 자폐성 장애인도 반복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중증장애인의 정도가 심하면 복지관에 대기를 넣어도 평가기간을 통해 탈락되곤 함.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국가에서 책임져 줬으면 함.
- 장애인관정에서 탈락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실제로 벌금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가 다수여서 장애인 취업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창출해주었음 좋겠음.
- 올해부터 장애인 개별적 맞춤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여 현장에서도 장애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어려움 등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알맞은 지원책을 제시해주길 바람.
- 이용시설 및 장기보호센터는 많으나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은 많지 않음. 보호자가 아프거나 휴가 중에 장애인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신설되길 바람.
- 독거 장애인을 위한 말벗서비스 필요.
- 자활센터 열악한 환경 개선.

2018년 옥구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제언

남동강애인공습복기관

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18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는 2018년 11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최근 거주지를 남동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자는 설문에 응답),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4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6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2018)」, 「서울시립대학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및 욕구대응성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중심으로(2007)」 및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2017)」, 「고흥군장애인복지관, 2017 장애인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7)」, 「푸르메재단, 종로구 장애인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 운영을 중심으로(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이용, 장애인복지 영역별 서비스 욕구,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인과의 관계는 본인 41.7%(146명), 가족 50.0%(175명), 외부인 8.3%(29명)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자’ 48.7%(171명), 여자 51.3%(180명)로 조사되어 여자가 남자보다 2.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0-9세 이하가 13.0%(43명), 10-19세 이하가 14.3%(47명), 20-29세 이하가 23.7%(78명), 30-39세 이하가 14.6%(48명), 40-49세 이하가 13.4%(44명), 50-59세 이하가 12.8%(42명), 60-69세 이하가 5.2%(17명), 70세 이상이 3.0%(10명)로 나타나 20-2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분포는 남녀모두 20-29세 이하 응답자가 29.1%(46명), 18.7%(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0-9세 이하 18.4%(29명), 여성은 40-49세 이하 18.1%(31명)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10-19세 이하 17.7%(28명), 여성은 30-39세 이하 17.0%(29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0-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18.4%, 여성이 8.2%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49세 이하 응답자는 남성이 8.2%, 여성이 18.1%로 약 2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수급자 28.2%(98명), 비수급자(일반) 71.8%(250명)로 나타나 비수급자(일반)가 수급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수준에서 수급자 급여 비율은 중복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33.4%(54명), 의료급여 36.4%(59명), 주거급여 22.2%(36명), 교육급여 8.0%(13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4.5%(223명), 기혼이 23.7%(82명), 이혼이 5.5%(19명), 사별이 4.3%(15명), 별거 0.3%(1명), 기타 1.7%(6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9.7%(34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18.1%(63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8.3%(29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46.4%(162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16.3%(57명), 무학이 1.2%(4명)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99만원 이하가 17.2%(44명), 100-199만원 이하가 21.2%(54명), 200-299만원 이하가 14.5%(37명), 300-399만원 이하가 19.2%(49명), 400-499만원 이하가 10.6%(27명), 500만원 이상이 17.3%(44명)로 나타나 100-199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55.2%(188명), 전세 14.4%(49명), 월세 13.8%(47명), 영구임대 12.9%(44명), 기타 3.5%(12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 15.5%(47명), 부부+자녀 50.5%(153명), 조부모+부부+자녀 3.3%(10명), 한부모+자녀 16.2%(49명), 조부모+자녀 3.3%(10명), 기타 11.2%(34명)로 나타나 부부+자녀가 총 응답수의 1/2을 차지했다.

가족내 장애 유무는 '없다.'는 응답이 75.1%(257명), '있다.'는 응답이 24.9%(85명)로 나타나 가족내장애가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내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29.2%(24명), 시각장애 3.7%(3명), 뇌병변장애 19.5%(16명), 청각장애 1.2%(1명), 언어장애 2.4%(2명), 지적장애 24.4%(20명) 자폐성장애 9.8%(8명), 정신장애 4.9%(4명), 신장장애 3.7%(3명), 심장장애 1.2%(1명)로 나타나 가족내 장애 유형중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남동구 91.8%(314명), 인천타지역 5.9%(20명), 타시도 2.3%(8명)으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거주기간은 1년 이하 4.6%(14명), 1년 초과-5년 이하 51.5%(158명), 5년 초과-10년 이하 14.0%(43명), 10년 초과 29.9%(92명)으로 나타나 1년 초과-5년 이하 남동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거주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관련 특성 ■

장애등록 유무는 등록 90.9%(320명), 미등록이 9.1%(32명)로 나타나 응답한 장애인 10명 중 1명꼴로 장애 미등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미등록 사유는 ‘장애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7.2%(2명),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7.2%(2명),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17.9%(5명),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46.4%(16명), 기타가 21.4%(6명)으로 나타나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총 응답수의 1/2이 조금 안되게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나이가 어려서’, ‘내년에 등록 예정’, ‘등록심사 탈락’, ‘아이가 어려 치료를 받아 비장애인으로 갈 수 있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장애 유형은 중복을 포함하여 지체장애 20.6%(80명), 시각장애 3.1%(12명), 뇌병변장애 15.0%(58명), 청각장애 3.1%(12명), 언어장애 6.7%(26명), 지적장애 27.9%(108명), 자폐성장애 11.9%(46명), 정신장애 7.8%(30명), 신장장애 1.8%(7명), 심장장애 0.5%(2명), 간장애 0.3%(1명), 뇌전증장애 1.3%(5명)으로 나타나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는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27.1%(58명), 29.4%(52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은 뇌병변장애 16.9%(35명), 여성은 지체장애 26.6%(47명)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는 남성이 0.9%, 여성이 5.1%로 약 4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응답자는 각각 남성이 8.7%, 15.5%, 여성이 4.5%, 7.9%로 약 2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7.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지적장애 38.7%(24명), 20~29세는 지적장애 44.7%(46명), 30~39세는 지적장애 40.8%(20명), 40~49세는 지체장애 33.3%(13명), 50~59세는 지체장애 59.1%(26명), 60~69세는 지체장애 47.4%(9명), 70세~는 시각장애 60%(6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은 1급이 33.6%(107명), 2급이 30.4%(97명), 3급이 19.1%(61명), 4급이 4.7%(15명), 5급이 5.6%(18명), 6급이 6.6%(21명)로 나타나 1급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에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2급이 26.2%(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급이 23.8%(19명)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6급 50.0%(5명), 1급 30.0%(3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뇌병변장애인은 1급 21.9%(27명), 2급 19.2%(10명) 순이며, 청각장애인은 1~5급까지 각각 20.0%(2명)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언어장애인은 1급 50.0%(9명), 4급 22.2%(4명) 순으로, 지적장애인은 2급 47.0%(39명), 1급 33.7%(28명)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자폐성장장애인은 1급 54.6%(18명), 2급 42.4%(14명) 순으로, 정신장애인은 3급 64.7%(11명), 2급 23.5%(4명) 순으로, 신장장애인은 4명중 2급, 5급이 각각 50.0%(2명), 심장장애인은 3급 100%(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1급에서 지적장애인이 27.5%(2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이 26.5%(27명)이 많았다. 2급에서는 지적장애인 41.1%(39명), 지체장애인 22.1%(21명) 순으로, 3급은 지체장애인 31.7%(19명), 지적장애인 26.7%(16명) 순으로, 4급은 지체장애인 38.5%(5명), 언어장애인 30.8%(4명) 순으로, 5급은 지체장애인 50.0%(9명), 뇌병변장애인 22.2%(4명), 6급은 지체장애인 65.0%(13명), 시각장애인 25.0%(5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가 27.1%(93명),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가 23.0%(79명), ‘약간의 도움만으로 활동 가능’ 28.9%(99명), ‘혼자서 독립적인 활동 가능’이 21.%(72명)로 나타나 ‘약간의 도움만으로 활동 가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 ■

일상생활 속 가장 큰 어려움에서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33.2%(1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총 응답 수의 1/3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업의 어려움 12.9%(45명), 일상생활의 어려움 10.6%(3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는 취업의 어려움이 15.9%(51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14.4%(46명),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12.5%(40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 2순위의 총 빈도수를 파악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138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으며, 다음으로 취업의 어려움(96명), 일상생활의 어려움(83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이 62.2%(219명), ‘친구·친척·이웃들과 상의’가 6.5%(23명), ‘관공서에 도움 요청’ 2.8%(10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이 7.4%(26명),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2.0%(7명),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0.9%(3명), ‘혼자서 해결’이 17.6%(62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총 응답 수의 1/2이 넘는 응답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 이용여부는 ‘적극 이용하겠다’의 응답이 54.2%(189명), ‘이용하겠다’는 28.7%(100명), ‘고려해보겠다’가 14.6%(51명), ‘이용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가 1.4%(5명), ‘이용할 생각이 없다’가 1.1%(4명)으로 나타나 ‘적극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총 응답의 1/2을 차지하였고, 어려움 지원 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총 82.9%를 보였다.

■ 복지관 이용 ■

복지관 정보 경로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만 응답하였으며,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가 40.9%(108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2.7%(7명), ‘인터넷(홈페이지)’가 13.3%(35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가 25.4%(67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가 15.5%(41명), ‘기타’가 2.2%(6명)으로 나타나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을 통해’, ‘복지관 유관기관’을 통해 등이 있었다.

복지관 이용에 불편한 점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만 응답하였으며,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6.1%(15명),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6.1%(15명), 이동 거리가 길거나 교통이 불편하다가 14.7%(36명), 복잡한 이용절차가 3.7%(9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8.4%(45명), 긴 대기기간이 26.5%(65명), 직원의 불친절이 1.2%(3명), 불편한 편의시설 및 환경 5.3%(13명),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9.4%(23

명), 기타가 8.6%(21명)으로 나타나 긴 대기기간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용기간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

복지관 선택기준은 이동의 편리성(교통)이 19.6%(67명),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34.6%(118명), 이용료가 4.7%(16명), 이용대기 기간이 4.1%(14명), 직원의 친절성이 4.4%(15명), 편의시설 확충이 4.1%(14명),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이 27.3%(93명), 기타 1.2%(4명)이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말에 이용 가능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은 2가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14.0%(90명),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이 6.6%(42명),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이 15.3%(98명), 문화·여가 기회 제공이 11.1%(71명),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이 19.2%(123명),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이 3.0%(19명),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가 3.0%(19명), 경제·생활서비스 지원이 5.4%(35명),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이 2.8%(18명),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이 8.4%(54명)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개선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영역별 욕구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이 40.5%(140명), 6개월 이하 10.1%(35명), 6개월~1년 이하 11.8%(41명), 1년~3년 이하 21.4%(74명), 3년 이상 16.2%(56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은 여가시간 활용이 17.7%(60명), 또래와의 어울림 13.2%(45명), 사회성 향상 20.3%(69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2.1%(75명), 보호자의 시간 활용 3.2%(11명), 특기적성 개발 3.8%(13명), 다양한 체험 19.4%(66명), 기타 0.3%(1명)으로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서 1순위는 음악활동이 30.5%(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들이·여행 15.9%(55명), 문화체험 13.8%(48명)의 비율이 높았다. 2순위는 나들이·여행이 25.0%(8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문화체험 16.8%(58명), 음악활동 10.2%(35명)의 비율이 높았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볼 때 음악활동과 나들이·여행이 14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문화체험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등산’, ‘한문’ 등이 있었다.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이 42.5%(149명), 6개월 이하와 6개월~1년 이하가 각각 8.3%(29명), 1년~3년 이하 17.9%(63명), 3년 이상 23.0%(81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34.9%(119명), 사회성 향상 22.3%(76명), 특기적성 개발 6.2%(21명), 지식 향상 4.4%(15명), 향후 취업준비 7.3%(25명), 다양한 체험 13.2%(45명), 자립능력 향상 11.4%(39명), 기타 0.3%(1명)으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에서 1순위는 일상생활훈련이 27.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18.4%(64명), 직업교육 및 훈련 13.3%(46명)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22.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6.3%(55명), 일상생활훈련 11.6%(39명)으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139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일상생활 훈련이 134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이 48.7%(168명), 6개월 이하 9.0%(31명), 6개월~1년 이하 12.2%(42명), 1년~3년 이하 15.9%(55명), 3년 이상 14.2%(49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목적은 체력단련이 28.4%(97명), 재활 및 건강 증진이 30.8%(105명), 여가시간 활용 9.1%(31명), 사회성 향상 7.0%(24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7.3%(59명), 특기적성 개발 2.1%(7명), 다양한 체험 4.7%(16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재활 및 건강 증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에서 1순위는 수중종목이 35.3%(1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취미운동 22.3%(77명), 건강검진 및 상담이 15.3%(53명)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취미운동이 25.7%(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검진 및 상담이 22.2%(74명), 비만관리 18.9%(95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 총 빈도수를 보면 수중종목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미운동이 163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이 71.8%(245명), 6개월 이하 4.4%(15명), 6개월~1년 이하 6.8%(23명), 1년~3년 이하 7.9%(27명), 3년 이상 9.1%(31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훈련이 27.8%(93명), 취업현장의 체험 7.8%(26명), 직업능력 향상 14.0%(47명), 취업 및 창업 11.6%(39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4.8%(83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5.7%(19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7.5%(25명), 기타 0.8%(3명)으로 나타나 일상생활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1순위는 직업적응훈련 38.3%(127명), 자격증 취득 교육 19.6%(65명) 순으로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취업알선 및 연계 28.4%(90명), 직업훈련 24.9%(79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 총 빈도수에서는 직업적응훈련이 18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에서 1순위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이 36.7%(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과 제빵이 18.2%(70명)로 많았다. 2순위는 제과 제빵 21.9%(70명), 바리스타 21.6%(69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에서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이 161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노동’, ‘서비스직’, ‘패션’ 등이 있었다.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용 경험 없음 79.0%(271명), 6개월 이하 2.9%(10명), 6개월~1년 이하 2.3%(8명), 1년~3년 이하 4.4%(15명), 3년 이상 11.4%(39명)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 없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서 1순위는 생계비지원이 36.2%(11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출지원이 13.4%(44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는 가사지원이 18.6%(58명), 외출지원 16.7%(52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를 봤을 때, 생계비지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외출지원이 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설문조사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원하는 욕구에서 나아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관의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4가지의 결론을 유추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욕구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 속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총 응답 수의 1/3의 비율이었다. 총 빈도수에서도 13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또한 희망하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도 1순위로 생계비지원 36.2%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1순위, 2순위를 합한 총 빈도수에서도 128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1순위, 2순위에서 각각 12.9%, 15.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순위, 2순위의 총 빈도수에서도 96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건의사항에서도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과 단순한 반복적 업무, 노동업무 등의 개발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이에 따른 현실적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국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가장 주력해야 할 서비스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에서도 생계 지원, 경제활동 기회 증진 등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동구 장애인의 영역별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총 5가지의 영역별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었으며, 다음 결과는 각 희망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 음악활동(노래교실, 난타, 국악, 합창, 악기연주 등)
- 나들이·여행

■ 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훈련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 수중종목(수영, 아쿠아로빅)
- 취미운동(볼링, 인라인스케이트, 클라이밍, 요가, 에어로빅, 댄스 등)

■ 직업재활 서비스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 재가복지 서비스

- 생계비지원
- 외출지원

이처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장애인의 욕구를 광의적 의미를 넘어 협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교육 서비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에 대한 이용인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에게만 의견을 물어본 결과, 복지관의 정보는 주로 복지관 홍보물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복지관의 홍보물을 새롭게 구성하여 발달장애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할 것이며, 후원자와 복지관 방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복지관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긴 대기기간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의견은 건의사항에서도 나타났는데 ‘치료 및 프로그램의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상당 수 있었으며,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확대’, ‘사회복지사 및 치료사 확충’에 대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나 치료 수에 비해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사 및 치료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에 피력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 서비스 정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중복포함),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이 19.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볼 수 있는데, 교육서비스 목적에 대한 응답에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34.9%로 가장 높았고, 희망하는 교육서비스 역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일상생활훈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의사항에서는 ‘자립활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성인 장애인이 향후 보호자 부재 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함’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른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가와 함께 주거개선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욕구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설문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설문지ID



단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장애인의 문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3. 귀하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취업의 어려움
③ 편의시설의 어려움	④ 교육의 어려움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⑥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⑧ 심리·사회적 어려움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⑪ 문화생활의 어려움	⑫ 없음
⑬ 기타()	

4. 귀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__① 가족에게 도움 요청	__② 친구·친척·이웃들과의 상의
__③ 관공서에 도움 요청	__④ 사회복지시설에 도움 요청
__⑤ 종교단체에 도움 요청	__⑥ TV·신문·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__⑦ 혼자서 해결	__⑧ 기타 ()

5. 귀하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__① 적극 이용하겠다.	__② 이용하겠다.
__③ 고려해보겠다.	__④ 이용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 된다.
__⑤ 이용할 생각이 없다.	

Ⅲ. 다음은 복지관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6. (복지관 이용자만) 귀하는 복지관의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얻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input type="checkbox"/> ②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input type="checkbox"/> ③ 인터넷(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④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input type="checkbox"/> ⑤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7. (복지관 이용자만) 귀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input type="checkbox"/> ② 의사소통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이동 거리가 길거나 교통이 불편	<input type="checkbox"/> ④ 복잡한 이용절차
<input type="checkbox"/> ⑤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⑥ 긴 대기기간
<input type="checkbox"/> ⑦ 직원의 불친절	<input type="checkbox"/> ⑧ 불편한 편의시설 및 환경
<input type="checkbox"/> ⑨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8. (모두응답) 귀하는 복지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이동의 편리성(교통)	<input type="checkbox"/>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input type="checkbox"/> ③ 이용료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대기 기간
<input type="checkbox"/> ⑤ 직원의 친절성	<input type="checkbox"/> ⑥ 편의시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⑦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9. (모두응답) 귀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input type="checkbox"/> ②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input type="checkbox"/> ④ 문화·여가 기회 제공
<input type="checkbox"/> ⑤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input type="checkbox"/> ⑥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input type="checkbox"/> ⑧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⑨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input type="checkbox"/> ⑩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IV. 다음은 장애인의 **영역별 욕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주시요.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란?
본 설문지에서 의거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복지센터, 주민센터, 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10. 귀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에서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 경험 없음 | <input type="checkbox"/> ② 6개월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③ 6개월 ~ 1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1년 ~ 3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3년 이상 | |

11.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여가시간 활용 | <input type="checkbox"/> ② 또래와의 어울림 |
| <input type="checkbox"/> ③ 사회성 향상 | <input type="checkbox"/>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 <input type="checkbox"/> ⑤ 보호자의 시간 활용 | <input type="checkbox"/> ⑥ 특기적성 개발 |
| <input type="checkbox"/> ⑦ 다양한 체험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12.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음악활동(노래교실, 난타, 국악, 합창, 악기연주 등) |
| <input type="checkbox"/> ② 미술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③ 연극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④ 공예활동(가죽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
| <input type="checkbox"/> ⑤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 <input type="checkbox"/> ⑥ 요리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⑦ 취미활동(캘리그래피, 사진촬영, 독서 등) |
| <input type="checkbox"/> ⑧ 숲체험 |
| <input type="checkbox"/> ⑨ 나들이·여행 |
| <input type="checkbox"/> ⑩ 자원봉사활동(마사지, 환경보호 등) |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서비스란?**
본 설문지에서 의거하는 교육 서비스란 사회교육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복지센터, 주민센터, 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13. 귀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에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이용 경험 없음
- ② 6개월 이하
- ③ 6개월 ~ 1년 이하
- ④ 1년 ~ 3년 이하
- ⑤ 3년 이상

14.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 ② 사회성 향상
- ③ 특기적성 개발
- ④ 지식 향상
- ⑤ 향후 취업준비
- ⑥ 다양한 체험
- ⑦ 자립능력 향상
- ⑧ 기타()

15.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1:1 멘토링
- ②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
- ③ 일상생활훈련
- 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 ⑤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 ⑥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 ⑦ 직업교육 및 훈련
- ⑧ 안전 및 건강교육
- ⑨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 ⑩ 성교육
- ⑪ 기타()

<다음은 **운동·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동·건강증진 서비스란?**
본 설문지에서 의거하는 운동·건강증진 서비스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복지센터, 주민센터, 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16. 귀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에서 운동·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이용 경험 없음
- ② 6개월 이하
- ③ 6개월 ~ 1년 이하
- ④ 1년 ~ 3년 이하
- ⑤ 3년 이상

17. 귀하가 운동·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체력단련
- ② 재활 및 건강 증진
- ③ 여가시간 활용
- ④ 사회성 향상
- ⑤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 ⑥ 특기적성 개발
- ⑦ 다양한 체험
- ⑧ 기타()

18. 귀하가 운동·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구기종목(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 ② 수중종목(수영, 아쿠아로빅 등)
- ③ 격투기종목(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등)
- ④ 취미운동(볼링, 인라인스케이트, 클라이밍, 요가, 에어로빅, 댄스 등)
- ⑤ 건강검진 및 상담(운동처방 등)
- ⑥ 비만관리(인바디 측정, 헬스 등)
- ⑦ 기타()

22. 귀하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희망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①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 ②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 ③ 인쇄(사진, 스크린) |
| ④ 미용, 피부관리 | ⑤ 조리(양식, 한식 등) | ⑥ 제과 제빵 |
| ⑦ 바리스타 | ⑧ 도배 | ⑨ 기타() |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란?

본 설문지에서 의거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복지센터, 주민센터, 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23. 귀하는 복지관 또는 타기관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 경험 없음 | <input type="checkbox"/> ② 6개월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③ 6개월 ~ 1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1년 ~ 3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3년 이상 | |

24.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2가지만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① 생계비지원 | ② 가사지원 | ③ 외출지원 |
| ④ 정서지원 | ⑤ 목욕지원 | ⑥ 차량지원 |
| ⑦ 가정도우미 파견 | ⑧ 의사소통지원 | ⑨ 보장구 수리·대여 |
| ⑩ 밑반찬지원 | ⑪ 무료급식 | ⑫ 이미용서비스 |
| ⑬ 기타() | | |

25. 남동구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귀하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 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8년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18-8

- 발행일 : 2018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